



토 론

**지난 30년간 한국의 금융발전에 관한
거시적 평가와 향후 과제**

2019. 6. 14

김준경

KDI 국제정책대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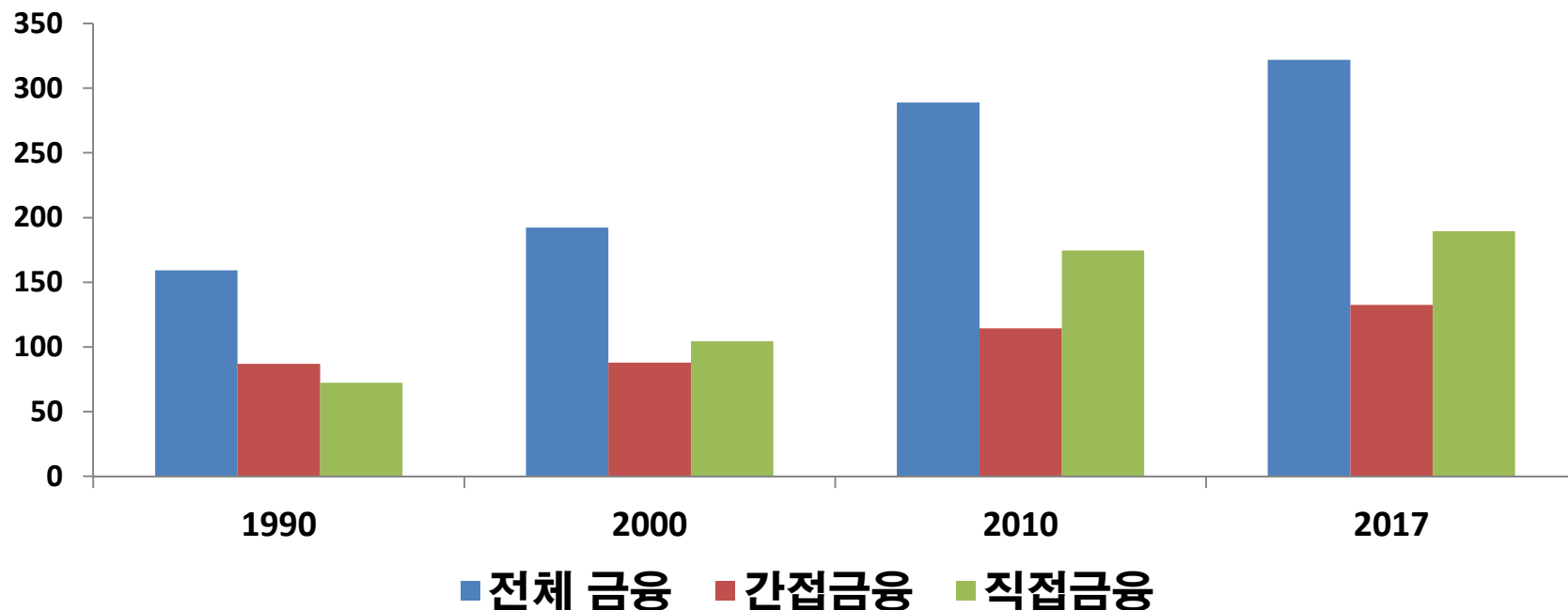
1. 한국의 금융부문 발전 (1/2)

1

▶ 지난 30년간 한국의 금융부문은 시장의 규모 및 구조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

- 전체 금융시장 규모/GDP: 1990년 159% → 2017년 322%
- 직접 금융시장 규모/전체 금융시장규모: 1990년 45% → 2017년 5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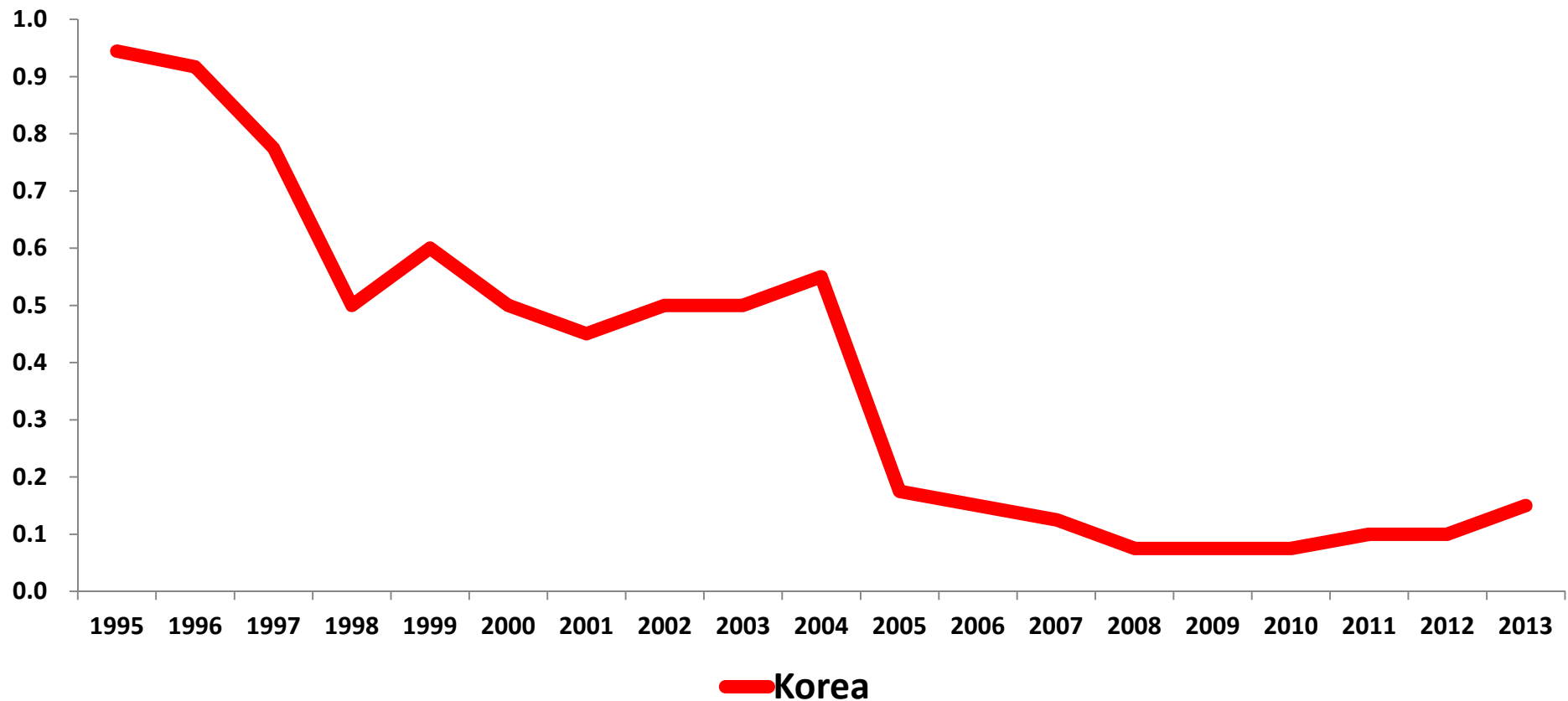
전체 금융시장 규모/GDP (1990-2017: %)



출처: Yung Chul Park, Joon-Kyung Kim, and Hail Park. *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: 1980-2017* (발간예정), Harvard University Press

〈참고〉 한국의 자본시장 자유화 지수

-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규제 완화, 금융시장/금융산업 개방이 추진됨



Schindler Index 자본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수준을 측정. 0-1 범위로 측정되며, 점수가 낮을수록 자본시장 유출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임을 의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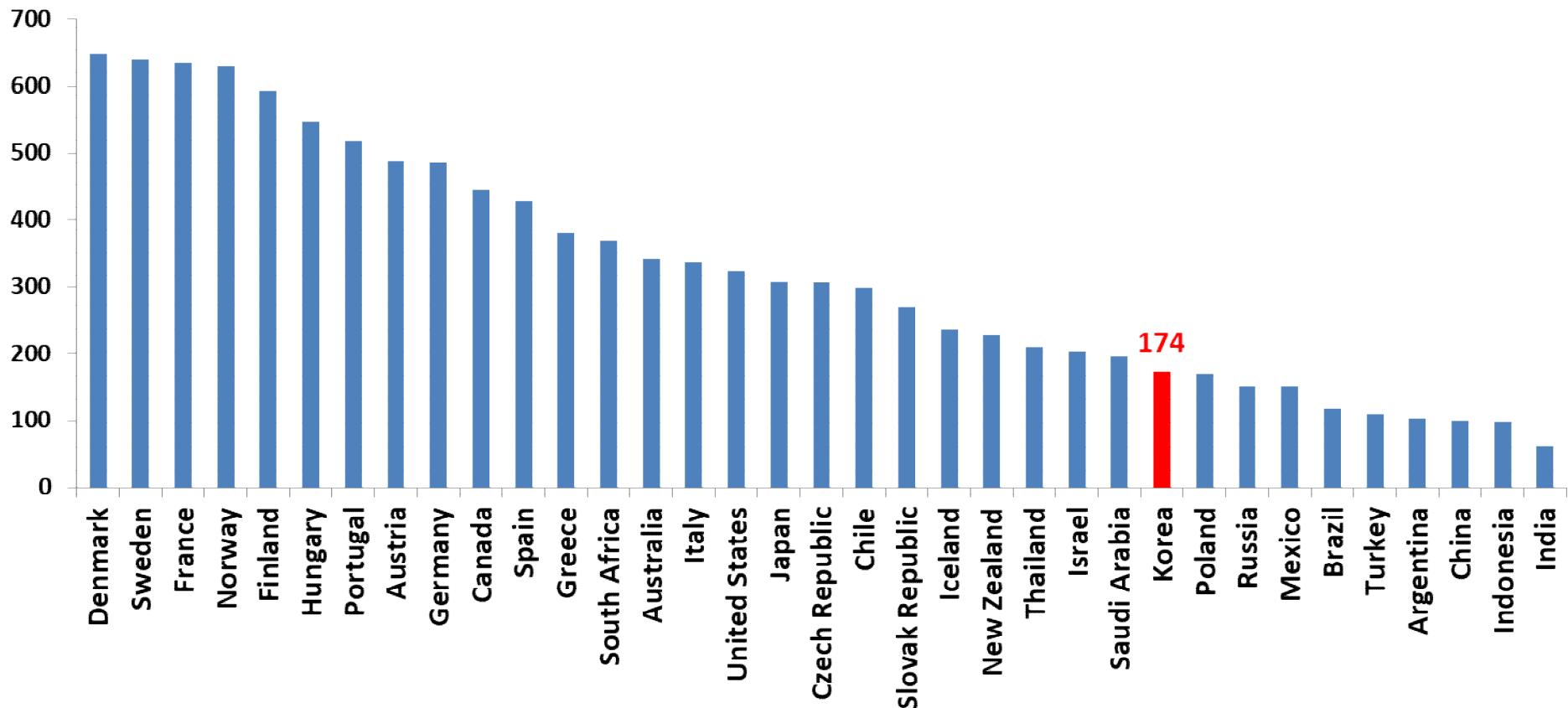
〈참고〉 금융개방도(%): (총대외자산 + 총대외부채)/GDP



출처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〈참고〉 금융개방도 국제비교 (2017년 현재, %)

오늘날 한국은 신흥경제권에서는 금융시장이 가장 개방된 국가 중의 하나



금융개방도가 매우 높은 국가: Luxembourg 41,411%, Ireland 3,901%, Netherlands 2,439%, Switzerland 1,396%, United Kingdom 1,120%, Belgium 98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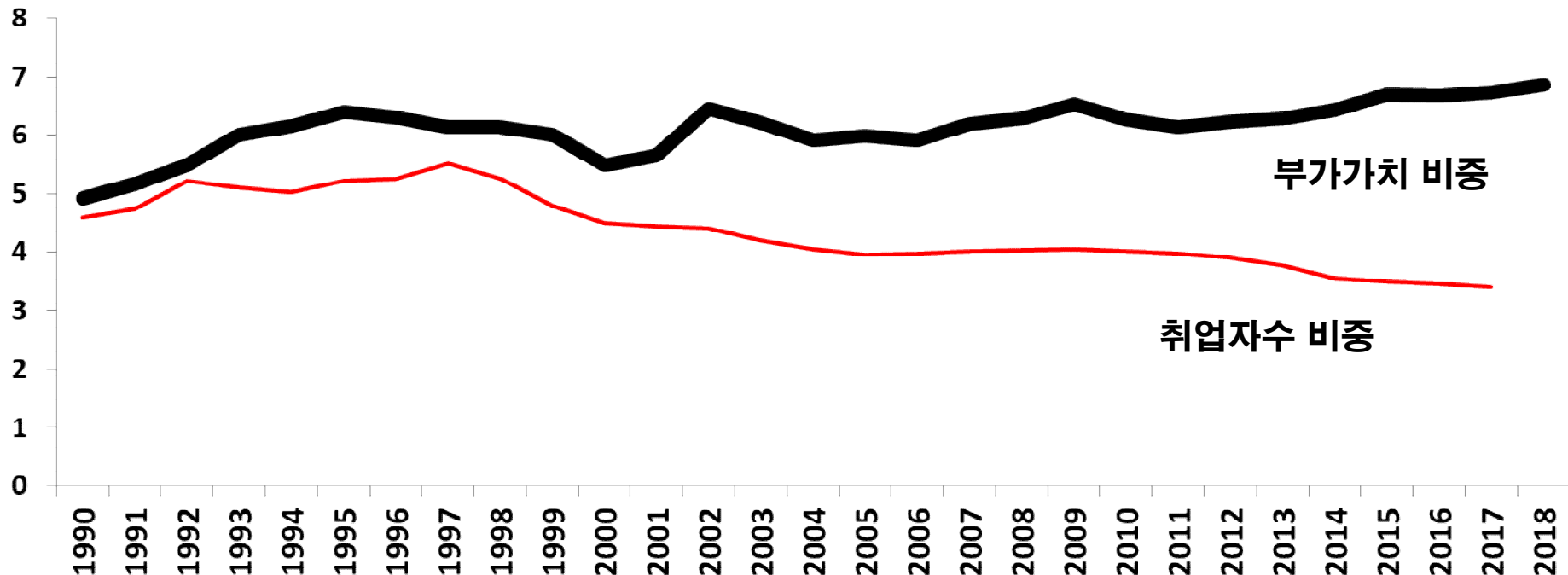
출처: IMF,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Database
World Bank: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

1. 한국의 금융부문 발전 (2/2)

▶ 지난 30년간 **금융산업의 생산성** 증가속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속도를 **상회**한 것으로 추정됨.

- 금융산업의 노동투입증가율은 경제 전체의 노동투입증가율을 하회한 반면,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율 상회

금융산업의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 (%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

2. 금융부문의 발전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

▶ 금융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 반면,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

- 금융심화가 비금융산업(실물부문)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.
(박정수 · 박하일 · 박영철 · 박정환, 「우리나라 금융과 경제성장」 2018)

▶ 위의 추정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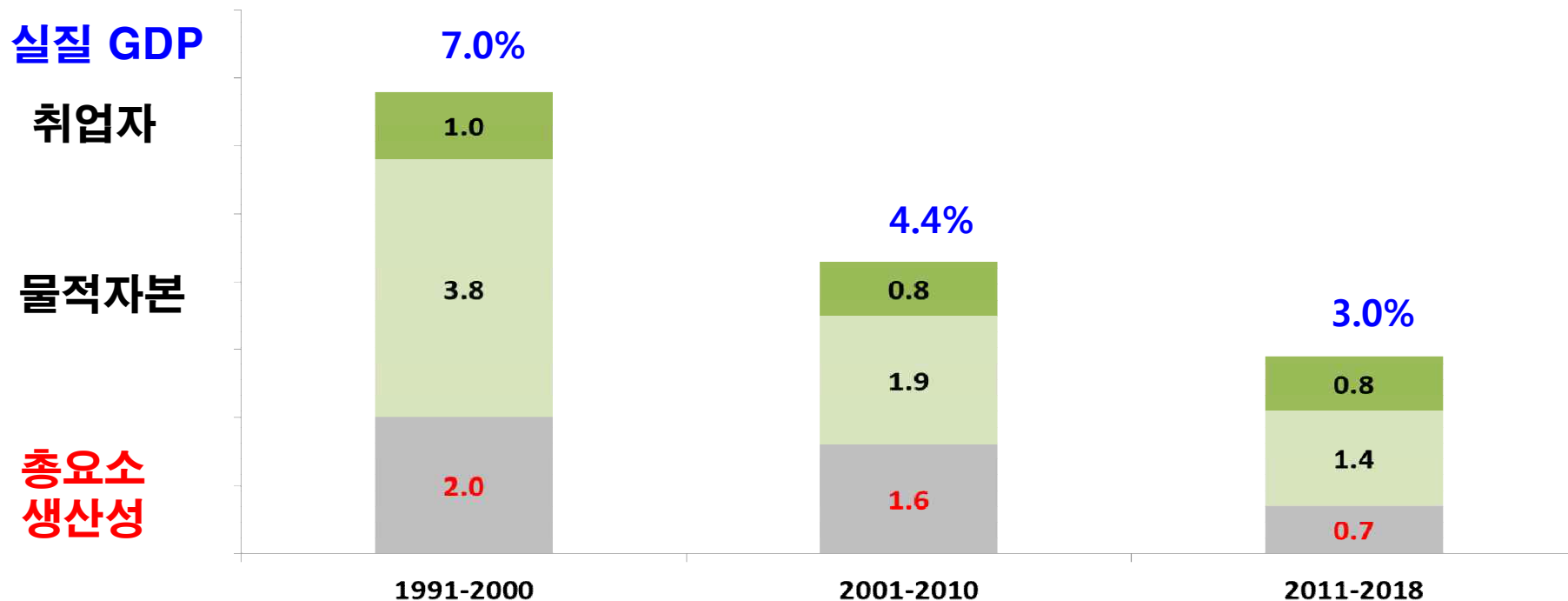
- 비금융부문內的 **규제** (예: **서비스업에 대한 前近代的 규제 지속**)로 인하여 금융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았음을 반증
- 금융산업內的 **구조적 결함**도 금융의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제약시킨 요인으로 작용.
* 예: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관치금융 잔존.
KDI 남창우 「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제언」, 2014)

〈참고〉 성장회계 분석: 경제성장을 둔화 요인

▶ **총요소생산성** 증가세 둔화가 경제성장을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
- **총요소생산성**의 GDP 성장 기여도가 1990년대 2.0%p, 2000년대 1.6%p, 2010년대 0.7%p로 지속적으로 하락

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(%)



출처: KDI 권규호 (2019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와 장기전망)

3.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방향

▶ AI, Fin-tech 등으로 대변되는 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**실물경제의 생산성 증가**에 기여할 수 있는 **통로** 확보가 관건

▶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한 **자원배분의 효율성**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,

- 금융산업내에 잔존하는 정부의 비효율적 개입 최소화 (예: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합리적 개선)하고,
- 서비스산업 등 실물부문의 대대적인 **규제개혁** (**네거티브 규제 도입** 등)이 필수 → **“제3의 개방”**

<참고> “제 3의 개방” : ‘대내적 경쟁’ 에 대한 개방

▶ 지난 50여년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큰 그림으로 되돌아 보면,

- ① (제1의 개방) 1960년대 중반의 개방은 **무역부문**을 개방한 “제1의 개방” 으로 실물부문의 고도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. 최근 들어서는 무역개방효과가 성숙단계에 진입.
- ② (제2의 개방) 1990년대 이후의 **금융개방**은 “제2의 개방” 으로 지난 30년간 금융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.
- ③ (제3의 개방)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방은 ‘**대내적 경쟁에 대한 개방**’ (“제3의 개방”)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극대화됨으로써 **생산성 주도의 성장**(productivity-driven growth)이 실현될 수 있음.